
한글과 현대 생활

이기성·계원조형예술대학 출판디자인과 교수,
한국전자출판학회 회장

1. 한글은 시청각적 글자
2. 한글 음절 1만 1172개
3. 저작권이 있는 한글 글꼴
4. 남북한 한글 입력 코드

인류의 문화가 구술 문화에서 기술 문화로 발전해 왔다고 주장하는 이니스(A. Innis), 데리다(J. Derrida), 맥루한(M. McLuhan)의 학설에 공감한다. 구술 문화는 청각 문화이고, 기술 문화는 시각 문화이다. 글자가 개발되기 전까지의 인류는 말(언어)에 의하여 의사 전달을 하였고, 이는 공동체 구성원 전원이 같은 말을 사용하였고, 같은 말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원의 지식이 같을 수 있었으나 글자(문자)가 개발되고부터는 글자를 아는 부류, 즉 일부 특권층만이 지식을 독점하는 사회로 변화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는 세종 대왕도 지적한 바 있다.

1. 한글은 시청각적 글자

문화의 보관과 계승은 글자로 가능하므로 글자를 문화를 담은 그릇, 문

화를 보관하는 그릇이라고도 한다. 글자의 좋고 나쁨이 문화를 정확하게 전승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다. 한글은 자소(알파벳) 문자이면서도 한 단계 더 발전한 음소 문자이다. 음소는 바로 구술 문화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 한글은 자소 언어의 시각적 기술 문화에다 음소가 조합하여 음절을 이루는 청각적 구술 문화를 겸한 글자이다.

세간에서 현대가 전자 매체 시대, 인터넷 시대, 디지털 시대라고들 말한다. 현대는 시각과 청각을 둘 다 사용하는 멀티미디어 시대이다. 특히 원하는 곳을 순서대로 찾아가지 않고 한 번에 찾아가는 방식인 하이퍼텍스트 방식을 사용하는 인터넷은 글자, 사진, 그림, 동영상, 소리를 골고루 사용하는 시청각 문화의 대표적인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원래의 시각 문화는 여러 곳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문화였으나 글자의 개발은 글자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따라서 순서대로 읽어 가는 순차적(차례차례 순서대로) 방식의 문화로 변화시켰다. 종이 책을 볼 때는 맨 앞부분에 차례가 있어 여기에 쪽 번호가 있고, 해당 쪽 번호를 펴서 찾아보려는 곳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한 번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하이퍼텍스트 방식이라 하고, 차례를 보지 않고 300쪽 분량의 책을 1쪽부터 순서대로 넘기면서 원하는 쪽을 찾아가는 방식을 순차적 방식이라 한다.

인터넷에서는 원하는 곳으로 바로 가려면 해당 단어나 그림에다 마우스의 화살표 커서를 갖다 대어 화살표 모양이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면 마우스의 단추를 다닥 눌러서 한 번에 보고 싶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는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 때 프로그램 짜는 사람이 미리 준비해 놓았기 때문인데 이것을 하이퍼텍스트 연결 방식이라 한다.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메뉴에 나오는 모든 단추를 하나씩 눌러서 찾아보는 순차적 방식과 원하는 단어(커서 모양이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는)를 다닥 눌러서 바로 원하는 단어의 내용으로 찾아가는 하이퍼텍스트 방식의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빠르고 편리한 하이퍼텍스트 방식을 주로 사용하기 마련이다.

또한 컴퓨터 통신(PC통신)이나 인터넷의 채팅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림 글자인 이모티콘이나 개인용 컴퓨터 운영 체제 프로그램인 윈도나 맥오에

스 프로그램의 손톱그림글자(아이콘)의 등장은 글자를 아는 특권층이 아니라도 서술 시대처럼 모든 사회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모티콘이나 손톱그림글자 등 그림 문자의 등장과 하이퍼텍스트 방식의 내용(콘텐츠) 표현은 글자를 사용하는 기술 문화에서의 지식 독점을 막을 수도 있는 것이다.

세종 대왕은 어려운 글자가 아니고 만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창제하여 지식 독점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사용하기 쉬운 현대의 인터넷 문화나 그림글자 문화를 이미 600년쯤 전에 세종 대왕은 아주 배우기 쉬운 한글을 창제함으로써 특권층의 지식 독점뿐 아니라 이로 인한 권력과 자본의 왜곡 현상을 타파하고자 시도했던 것이다.

한글에 대하여 연구하려면, 먼저 로마 알파벳과 특성이 다른 한글 음절 글꼴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음과 모음이 일렬로 이루어져 단어가 되는 글자군과 자음과 모음이 다시 초성과 중성, 받침의 조합으로 새로 구성되는 음절 글자군의 글꼴은 그 성격부터가 다르다. 따라서 자음과 모음을 제작함으로써 완성되는 글꼴과 음절 글자군의 글꼴은 제작 콘셉트가 달라야 한다. 음절 글자군은 초성, 중성, 받침의 자소의 모양이 음절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나를 파악하여야 음절 글꼴을 정상으로 제작할 수 있다.

로마 알파벳의 글자 구조는 인쇄용 활자의 글꼴 구조와 같으나,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모여서 다시 초성과 중성, 받침으로 조합하여 음절을 구성하므로, 그 특성이 서로 다르다. 한글 음절의 글자꼴은 본문체(바탕체/명조체), 돋움체(네모체/고딕체), 제목체, 디자인체(그래픽체), 서예체, 쓰기체(필기체), 외래어(외국어)표기체, 탈네모틀체, 풀어쓰기체, 기타체의 10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한글을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고 인터넷 시대를 맞이한 현대의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거의 매년 한글날이 다가오면 방송국에서는 인터뷰 요청이 들어온다. 매년 같은 대화를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바로 한글 글자 1만 1,172개를 컴퓨터로 다 표현해 내지 못하는 점이다.

2. 한글 음절 1만 1,172개

현재 맞춤법에 맞는 한글 음절은 1만 1,172개이다. 그러나 국가의 행정 전산망이나 인터넷 통신망, 삐삐, 문자 메시지 등에서 한글 음절은 그 20%인 2,350개만 표현이 가능하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5공화국 시절 제정한 한국 표준 규격이 잘못 제정된 것을 아직도 국가와 대기업이 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가 정보 혁명(개인용 컴퓨터 혁명) 시기라면 2000년대는 유비쿼터스 혁명 시대라 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시대에는 펄프로 만든 종이와 전자 종이라 부를 수 있는 단말기(정확히는 단말기 화면)가 출판의 최종 매체로 함께 사용된다. 유비쿼터스 출판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독자가 속한 그 나라 문자의 표현 능력이다. 현대 한글 음절 1만 1,172자를 다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한국 U-출판 시대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다. 현대 한글 1만 1,172자를 종이 책, 디스크 책, 화면 책에서 모두 사용하려면 이에 적합한 한글 코드와 한글 폰트가 준비되어야 한다. 고성능 무선 단말기 개발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는 한글로 표현된 책의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한글을 컴퓨터에서 표현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초창기 우리나라 각 컴퓨터 생산업체에서는 자기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코드화시켜서 컴퓨터 본체, 모니터, 프린터 등을 자기네 것만 사야 제대로 한글이 표현되도록 하였다. 미국 역시 컴퓨터 업체마다 영문자를 표시하는 코드 방식이 달라서, 미국 정부에서 미국 문자 표준 코드(ASCII 코드)를 정하여 이를 지키도록 하였다.

컴퓨터용 글자를 코드(code)라고 하고, 컴퓨터용 한글을 한글 코드라고 한다. 한국 역시 1980년대의 각 개인용 컴퓨터 제작 회사는 자기네만의 독특한 한글 코드를 사용하여 삼성 컴퓨터 본체를 산 사람이나 삼성 컴퓨터에서 작업한 한글 파일은 삼성 프린터와 삼성 모니터가 아니면 한글이 제대로 인쇄되지 않도록 제작하였다. 금성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금성 컴퓨터에서 작업한 한글 파일은 금성 프린터에서만 한글이 제대로 인쇄되고, 삼

성 프린터나 삼보 프린터에서는 한글이 제대로 인쇄되지 않았으며, 이는 삼보 컴퓨터도 마찬가지였다.

1970년대 도서출판 장왕사의 교과서 종수는 72종이고, 저자는 200여 명이었는데, 각 저자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삼보 컴퓨터, 금성 컴퓨터, 삼성 컴퓨터, 청계천 세운상가 컴퓨터, 효성 컴퓨터 등 여러 종류였다. 그러므로 장왕사 편집부에서 컴퓨터로 원고 파일을 열어서 읽으려면, 장왕사 편집부에다 삼보 컴퓨터·금성 컴퓨터·삼성 컴퓨터·효성 컴퓨터 등 각종 개인용 컴퓨터를 전부 다 구입하여 놓고 이 컴퓨터로 읽어서 한글이 안 보이면 저 컴퓨터로 원고 디스켓을 옮겨서 다시 읽어 보고, 또 안 되면 또 다른 컴퓨터로 옮겨서 읽어 보고, 원고 교정 및 수정 작업은 컴퓨터별로 진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는 저자, 출판사, 인쇄소 사이에서 서로 한글 원고의 유통에 문제가 생기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한국전자출판학회에서 전자 출판용 '한글 표준 코드'를 정하고 이를 각 조판업체와 조판 프로그램 제작업체에 통보하여 이에 따르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한편 대학생들이 주축인 엠팔(Empal) 동호회와 협조하여 글틀 프로그램인 훈글(아래아한글)과 한글 통신 프로그램인 리볼트(Revolt of Empals)에도 이 전자 출판 표준 코드가 채용되도록 노력하였다.

1980년대 출판계와 인쇄계에서는 중앙 처리 장치(CPU)가 8비트급 컴퓨터인 애플II+ 호환 기종에서는 Call 3327한글, 한글III, 중앙한글의 3가지 한글 코드가 주로 사용되었고, 16비트급 컴퓨터인 IBM PC 호환 기종에서는 삼보·삼성·금성·효성·청계천 조립 컴퓨터 등 6~7개의 한글 코드가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여기에 1987년 한글이 2,350자만 표현되는 KS-5601 한글 코드가 표준(KS) 규격으로 추가되었다. 5공화국 정부에서 제정한 KS-5601 한글 코드 이외에는 모두 한글 음절 1만 1,172자를 다 표현하고 있었다. 한국전자출판학회의 한글 표준 코드는 물론 한글 1만 1,172자를 다 표현하는 한글 코드였다. 그러나 컴퓨터를 생산하는 대기업에서는 모든 한글을 표현하는 한글 코드 대신에 5공화국 정부가 지정한 2,350자만 표현하는 한글 코드를 사용

하기 시작했다.

1987년에 한글 표준 코드를 만든다는 뜻은 좋았으나, 출판과 인쇄 및 우리 한글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1만 1,172자의 한글 음절을 2,350자로 줄이는 실수를 하고 만 것이다. 이를 고치고자 5년간 출판인, 인쇄인, 대학 생들이 주축이 되어 노력한 결과 1992년에 KS 한글 코드가 수정이 되어 1만 1,172자를 다 표현할 수 있는 표준 한글 코드가 생겨났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가 운영하는 행정 전산망, 주민 등록 관리, 부동산 관리, 자동차 관리 등 국가 단위 관리 프로그램과 인터넷, 이동 통신 등 국가 기간산업의 한글 표준 코드는 1987년에 잘못 제정된 KSC-5601-87 표준 코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현대 한글 음절 1만 1,172자 중에서 20%인 2,350자만 표현이 가능한 실정이다.

[그림 1] 1만 1172자 표시와 2350자 표시

1만 1,172자 한글 원도 체재	2,350자 인터넷, 행정 전산망 매킨토시 체재	비 고
똥	뜨 ㅇ	
쌌	쎄 ㄱ	
닝큼	니 ㅇ큼	
전합니다	전화 ㅂ니다	
펼시	페 표시	
큘	퀴 ㄱ	
똥방	또 ㅁ방	

소형 단말기의 화면으로 책을 읽게 되는 U-출판 시대를 맞이하고, 엄지 손톱만한 크기의 컴퓨터 칩이 한글 데이터를 무선 발송하는 시대인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한국인의 글자인 한글을 1만 1,172자를 모두 제대로 표현하게 하는 일이다. 1980년대에 인쇄계 특히 조판계의 대표 주자였던 정주기, 서울시스템, 서울컴픽스, 사겐, 모리자와 등 한글 조판 프로그램의 한글 코드가 전부 달라서 한국인 사용자들이 고생했던 일을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반복하면 국력의 낭비와 국제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는 것이다.

1992년에 모든 한글을 표현할 수 있는 2바이트 조합형 한글 코드를 KS에 추가시켰으나, 아직까지도 인터넷이나 이동 통신업계, 정부의 행정 전산망은 2,350자만 표현이 가능하다. 하루라도 빨리 인터넷과 행정 전산망에서 한글 1만 1,172자가 다 표현되어야 유·출판 시대에 한글문화가 침체되지 않을 것이다. 이 외에 나중에 나온 국제 규격인 ISO-10646 규격에 맞춘 한글 코드는 KSC5700-95 규격이 있는데, 한글 1만 1,172자를 표현할 수 있고, 240개의 자소에다 코드를 부여하여 옛 한글까지 표현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개인용 컴퓨터에서 구현되지 않고 있다.

3. 저작권이 있는 한글 글꼴

우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한글 글꼴은 몇 가지나 있는가? 간판 글자나 포스터용 글자 등 그래픽용 글꼴은 많이 개발되어 있으나, 책 한 권을 전부다 조판할 수 있는 글꼴 1만 1,172자 전부가 한 벌로 개발된 글꼴(서체)은 아주 드물다. 한글 글꼴을 개발하는 데는 원도(밑그림, 본그림) 개발과 폰트 디자인(typeface design) 과정, 디지털 폰트 개발의 3개 과정이 필요하다. 출판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글꼴인 돋움체와 바탕체의 원도를 기획하고 디자인한 사람은 연세대의 홍윤표 교수와 계원대의 이기성 교수, 그리고 세종기념사업회의 박종국 회장 3명이었다. 3명이 디자인한 한글 글꼴을 그린 사람은 한글 서체 연구가인 최정순과 이기성이었다. 2,350자는 최정순이, 8,822자는 이기성이 원도를 그렸다!¹⁾

문화관광부(당시 문화체육부)가 주체가 되어 한글 글꼴을 개발할 때 2,350자와 8,822자를 합친 1만 1,172개의 폰트 디자인 과정과 폰트 개발의 마지막 단계인 아날로그 상태인 원도를 디지털 상태인 폰트로 개발한 사람은 이기성이었다. 한글 문화돋움체의 원도는 최정순과 이기성이 자의대로 제작한 것이 아니고, 16명의 한글 서체 개발 운영 위원과 한글 서체 개발

1) 이기성(1994), 『제목체 한글 폰트 개발연구』, (주)장왕사, p. 261.

연구진이 내린 결정에 따라서 원도를 제작하고 수정한 것이다.

[표 1] 교과서 본문용 한글 글꼴 기획 시 10가지 유의점

1. 한글 위주 조판
2. 가로쓰기 전용
3. 가독성(일정한 크기, 착시 고려)
4. 변별성(공간의 넓힘과 획의 명확함)
5. 차밍포인트 활자의 크기
6. 인쇄 용지 및 인쇄 방식
7. 미려도
8. 심리성(온화하고 끈기가 있도록 온화한 곡선 처리)
9. 시력 보호(피옌, 치옌 등 자소의 사이 띄기)
10. 경제성(릭스절충형 채택)

1991년에 문화체육부에서 임명한 한글 서체 개발 운영 위원에는 출판계·인쇄계·학계·관계 등 당시, 각 분야의 대표가 망라되어 있었다. 김낙준(당시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김석득(연세대학교 대학원장), 김일근(건국대학교 명예 교수), 박병천(인천교육대학 교수), 박용진(교육부 장학편수실장), 박종국(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 박충일(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손보기(단국대학교 초빙 교수), 송현(한글기계화추진위원회 회장), 안병희(당시 국립국어연구원 원장), 이기성(당시 신구전문대학 교수), 이상욱(가톨릭의과대학 안과 교수), 정덕용(문화부 어문출판국장), 최정순(한글서체 디자인개발연구원 원장), 허웅(한글학회 이사장), 홍윤표(당시 단국대학교 교수)의 16명이 운영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표 2] 연도별, 글자꼴별 원도 디자인 및 원도 제작

연도	글자꼴	원도 음절	원도 디자인	원도 제작	디지털 폰트 디자인
				2350개 8822개	1만 1172개
1991	문화바탕체	2350개	이기성/홍윤표/박종국	최정순	이기성
1992	문화돋움체	2350개	이기성/홍윤표/박종국	최정순	이기성
1993	문화바탕체목체	2350개	이기성/홍윤표/박종국	최정순	이기성
1993	문화돋움체목체	2350개	이기성/홍윤표/박종국	최정순	이기성

폰트 개발 연구원은 이기성과 한국전자출판학회의 손애경 박사를 비롯한 4명이었다. 그러나 문화체육부의 원도를 디지털 상태로 바꾸는 작업 역시, 이기성 혼자서 자의대로 제작한 것이 아니고, 폰트 검토 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폰트 검토 위원회는 김장실, 최진용(문화체육부 어문과장), 김진평(서울여자대학교 교수), 박영실(한국편집아카데미 원장), 박종국(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 박창수(국정교과서 편집과장), 박충일(한국인쇄협회 회장), 윤종목, 김상구(서울시스템 실장, 이사), 이기성(신구전문대 출판과 교수), 이승구(대한교과서 전무), 정준섭(교육부 연구관), 최정순(서체개발연구원 원장), 한성동(동이출판사 서체개발실 부장)의 14명이었다.

[표 3] 폰트 개발 연구진²⁾

이름	당시 소속	직급/학위	현재
이기성	신구전문대학	교수	총괄/박사
손애경	한국전자출판학회	선임 연구원/박사	계원조형예술대학 출판디자인과 교수
김진하	한국전자출판학회	연구원/석사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 교수
김민숙	한국전자출판학회	연구원/석사	

4. 남북한 한글 입력 코드

남북한 간에 한글 입력 코드 통일 작업이 시급하다. 남과 북의 컴퓨터 한글 입력 코드의 배열 순서가 상당히 다른데 이는 앞으로 통일 후 서로 간의 컴퓨터 통신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남북 간 언어의 이질화 현상은 생각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고, 이는 컴퓨터에서 한글을 구현하는 방식에서도 똑같다.³⁾

남한은 자음 배열의 순서가 홑자음 ‘ㄱ’ 다음에 쌍자음인 ‘ㄲ’이 오지만, 북한은 모든 홑자음이 끝난 다음에 ‘ㄱ’, ‘ㄸ’, ‘ㅍ’, ‘ㅍ’과 같은 쌍자음이 온

2) 이기성(1993), 『아날로그 본그림의 디지털화에 관한 연구-문화체육부, p. 10.

3) 허정화(2007), 『남북 한글 입력 코드 통일하자』, 디지털타임스, 2007. 10. 9.

다. 즉 북한에서는 홀자음 마지막인 ‘ㅎ’ 다음에 쌍자음이 시작된다. 따라서 북한의 한글 입력 코드는 ‘꿈’이 ‘학’ 뒤에 ‘똥’은 ‘오줌’ 뒤에 오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의 컴퓨터 한글 입력 코드가 다를 수밖에 없다. 통일이 됐을 때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한국어정보학회 주최로 지난 1996년 중국 연변에서 열린 ‘Korean 국제 학술 대회’ 때부터 북한 측 실무자와 함께 남북한 한글 코드 통일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차이점이 많아 공동 노력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으나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지는 못한 상태다. 한국어정보학회는 인간의 글자로서는 가장 많은 소리를 가장 비슷하게 표기할 수 있는 한글의 장점을 컴퓨터에서도 이어 가기 위한 노력으로 국문학 분야에서 김충희, 서정수, 홍윤표 교수 등이 중심이 되고, 컴퓨터 출판 분야에서는 이기성, 한규면, 유경희, 진용옥 교수 등이 중심이 되어서 1990년에 설립한 학술 단체다.

[표 4] 1996년 8월 남과 북의 한글 코드 합의안

1. 현재 각기 사용하고 있는 2바이트 완성형과 2바이트 조합형 부호계는 그대로 둔다.
2. ISO2022를 따르면서 우리글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1바이트 조합형 부호계를 만들고 우리글 정보 교환용으로 쓰기로 한다.
3. 각 측의 부호계 변환 프로그램은 각기 만들어 쓰기로 한다.
4. 우리글을 좀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부호계를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해 나가기로 한다.
5. 합의된 우리 글자 배열 순서에 따라 ISO10646-1을 재배열하는 문제와 공동 명칭 문제는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제기한다.

한국의 2,350개 음절만 표현되는 KSC-5601-87 완성형 한글 코드와 1만 1,172개 음절이 표현되는 KSC-5601-92 조합형 한글 코드가 바로 2바이트 완성형과 2바이트 조합형 부호계에 해당한다. 북한에서는 ‘국규 9566-93’에서 2바이트 완성형 한글 코드용 완성자를 2개의 수준으로 지정하고 있다.

1수준은 2,420자로 한국의 KSC-5601-87의 2,350자보다 70자가 더 많다. 2수준은 1,743자로 1 수준과 합하여 모두 4,163자의 완성자를 지정하고

